


<div></div> <div>인천광역시</div>		<div>보도자료</div>		<div>재외동포청 최적지</div> <div>인천뿐입니다</div>		
		배포일자	2023년 3월 29일(수) 총 2매			
담당부서	자연재난과	담당자	• 기후지진팀장 한정동 ☎440-3366 • 담당자 정재성 ☎440-3369	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도시점		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지진 대비한 도상훈련으로 대응 역량 강화 - 관내 지진 발생 상황 가정, 시 13개 협업부서와 군·구 참여해 합동 훈련 - - 상황 전파 및 지진 피해, 이재민 발생 등에 대비한 기관별 임무·역할 점검 -				
--	--	--	--	-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3월 29일 시 재난상황실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지진 대응 도상훈련*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*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훈련

이번 훈련은 시 소속 13개 협업부서와 10개 군·구가 공동 참여하는 합동훈련으로 시민안전본부장이 주재한 가운데, 각 기관(부서)의 부서장이 참석해 실시됐다.

훈련은 지난 1월 9일(월) 01:28 강화군 서쪽 25km 해역 발생한 지진을 훈련상황으로 가정했으며, 지진 규모 5.8, 최대진도 VII로 지진 발생 상황을 설정했다.

훈련은 지진 발생 직후 상황실에서 상황을 접수·전파해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한 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.

훈련에서는 대규모 지진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, 이재민 발생, 건물파손, 화재, 교통사고, 통신시설 장애 등에 대한 각 기관(부서)별 임무·역할을 점검했다.

특히, 화재 발생 현장의 상황 전달과 서구청의 초기 지진 대응 상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재난안전통신망(PS-LTE 단말기)을 활용했다.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, 소방, 국방,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재난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,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다.

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“지진은 사전에 예측하기 힘든 만큼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” 며, “앞으로도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5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